
Incredible Mumba!



2012. 09
Vol. 1

RaonAtti 8th
India

contents

-
- 단원소개
 - 일정소개
 - 코디네이터 소개
 - *에세이
 - Bombay YMCA 소개
 - Kamathipura & Night Study Center 활동
 - 인도의 거리풍경
 - 인도의 축제와 종교
 - 인도의 스포츠

매일이 행복해요

Anushka

머리보다 큰으로!

Rahul

인기 폭발
Naina

조용하게 울린다!

Sameer

막내지만 장녀처럼

Airpita



2012

september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5 인도도착	6 Bombay Y 기관 방문	7 Bombay Y 기관 방문	8 영화 JOKER 감상 With Boy's home 아이들 Bombay Y 기관 방문
9 day off The gateway of India Lio club 전통공연 관람	10 Bombay Y 기관 방문	11 Kamathipura Balwadi Hindi class	12 Kamathipura Balwadi Hindi class	13 Kamathipura Balwadi Hindi class	14 Kamathipura Balwadi Hindi class	15 meeting
16 day off ONAM FAIR BANDRA FAIR	17 Kamathipura Balwadi Hindi class	18 Balwadi 환경개선 Hindi class	19 Ganesh festival	20 Balwadi 환경개선	21 Balwadi 환경개선	22 Balwadi 환경개선
23 day off	24 Kamathipura Balwadi Hindi class Night study center	25 Kamathipura Balwadi cancer society 방문	26 Kamathipura Balwadi Hindi class Night study center	27 Kamathipura Balwadi Hindi class Night study center	28 Kamathipura Balwadi Hindi class Night study center	29 Balwadi 환경개선
30 Balwadi 환경개선	1 day off Elephant Island	2 Gandhi's B'day	3 Kamathipura Balwadi Hindi class Night study center Korea culture night	4 이사		

9월의 인도



- Bombay Y 기관방문:** 활동의 첫 주는 Bombay Y의 기관방문들로 이루어졌다. Bombay Y는 대표적인 대도시형 YMCA로, 큰 규모와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총 12개의 branch와 6개의 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팀은 그 중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을 주로 방문했다. 우리팀은 International House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고, ORD(Outreach Department)와 관련된 기관들에서 활동했다. 앞으로는 Boy's Home과 Street Children Program을 통해서 활동할 예정이다. 방문하는 기관마다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고, 이후에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는 열린 자세로 우리팀의 의견을 듣고 활동에 반영해 주었다.
- Kamathipura Balwadi:** 둘째 주부터 홍등가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유치원 개념의 pre-school에서 활동하였다. 세 명의 선생님과 세 명의 헬퍼가 한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오전에는 백여 명의 아이들이 오후에는 칠십 명 정도의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매일 꾸준히 나오지는 않아서 인원이 들쭉날쭉 했다. 우리팀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아침마다 스텝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주변 지리에 익숙해진 후에 팀원들끼리 도보로 이동할 수 있었다. 첫 파견이라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9월의 인도



처음 한 주는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위해 수업에 참여하며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관찰하는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발견한 문제점은 이 공간이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짐들이 어지럽게 놓여있어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발와리라 아이들의 위생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스텝 미팅을 통해 축제 주간을 이용해 가구 재배치와 대청소, 벽화 작업 등의 환경 개선 활동을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페인트를 칠하고, 화장실에는 타일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창문을 막고 있던 가구들을 치워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물 벽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부족한 일손은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았다. 마지막 주에는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했다. 신문지공 던지기, 신문을 이용해 알파벳 익히기, 페트병 볼링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함께했다. 또한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기와 손 씻기 교육을 실시했다.



9월의 인도



- 3. Hindi Class:** 힌두어 수업은 둘째 주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 매일 3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힌두어를 가르쳐 준 Swapnali는 Shaartak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우리가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힌두어 선생님이 되어주었다. 첫 주에는 기본적인 문법들을 배웠고, 발와리 활동을 시작하고부터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단한 회화들을 위주로 공부했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고, 힌두어 뿐만 아니라 인도 문화 전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 4. Night Study Center:** 넷째 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ORD에 있는 Night Study Center에서 활동했다.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보다는 주로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한국 문화를 전해주고, 인도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아이들과 선생님의 요청으로 마지막 날에는 Korea culture night을 기획해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우리는 준비해온 한복과 태권도 도복을 입고, 국내 훈련 때 배운 고누와 딱지치기를 가르쳐주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다. 덕분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



Allen Kotian: 비 냄새 가득하던 Mumbai 공항에 도착한 우리들을 마치 만화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활짝' 웃으며 'Welcome'이라는 말과 함께 꽃 목걸이를 걸어주던 Allen! 우리의 모든 활동과 스케줄, 활동 하면서 어려운 점들에 대해 가장 먼저 논의할 수 있는 main coordinator. 한 명, 한 명, 아픈 사람은 없는지 항상 챙겨주시고 한 주가 끝날 때마다 즐거운 한 주가 되었는지 묻는 걸 잊지 않으신다. Orientation 기간인 9월이 끝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Allen이 있는 Boy's Home 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데, Allen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기간들이 더더더더욱 기대가 된다.

Jinson Baby: 조금은 수줍은듯한 미소가 매력적인 그, Jinson! Baby라는 surname과도 잘 어울리게 항상 소년 같은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우리와 함께 찍은 페이스북 사진을 여섯명이나 '좋아요'를 눌렀다며 밝게 웃으며 우리에게 자랑하기도 하셨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Bombay YMCA의 Outreach Development Department를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오전시간에 활동했던 Kamathipura Balwadi(pre-school)와, 오후시간 동안 힌두어를 배웠던 Shaartak 기관의 기관장이시기도 하다. 한 달 동안 우리와 가장 많이 만나고 고민을 나누었으며, 그 때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다.

봄베이YMCA



Mumbai에 있는 Bombay YMCA(이하 Bombay Y). 처음 인도의 Bombay Y로 파견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왜 같은 지역을 지칭하는 명칭이 다른지, 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Mumbai와 Bombay의 차이는 무엇일지 의문이 들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의 역사를 겪었듯이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 시절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본래의 Mumbadevi라는 여신의 이름을 땄었던 Mumbai라는 이름이 영국인들 발음의 편의를 위해 Bombay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의 Bombay Y는 그 당시부터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채 이곳에 있다. Bombay Y가 처음에는 호스텔 관련 사업들과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들로 그 기반을 넓혀갔다면, 현재의 Bombay Y는 다양한 branch들이 있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build strong people, strong family, and strong community”라는 모토 아래, 그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umbai의 다소 비릿한 비 냄새와 시작했던 우리의 첫 주는 이런 community-based branch들을 방문하는 일정들로 채워졌다.

Bombay Y는 총 12개의 branch와 6개의 department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약 10개 정도의 branch와 department를 둘러보며 각각의 기관장들로부터 현재 이 branch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기관들에서 사람들의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있었고, 판자촌이 즐비한 곳에서는 병원비가 없어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주일에 두 번 무료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홍등가 근처의 유치원 개념의 프리스쿨(Balwadi)에서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주는 day care center를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일정들을 통해 각 기관들의 특성들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이는 Bombay Y 전체의 그림도 그려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관장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social work에 몸 담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의 마음가짐 역시 들어볼 수 있었다. 때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에 큰 돌을 하나 품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내게 큰 울림으로 남아있다.

인도의 사막 사파리 여행에서의 불편함에 시작했던 고민들. 무엇이 ‘개발’ 이고 무엇이 ‘발전’인가. 그리고 다시 찾은 인도, Mumbai. 이렇게 Bombay Y에서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운동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깨닫고 배우고 있다. 항상 사람을 향할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community를 향할 것. 내가 이 한 달 동안 이 곳에서 배운 것들이다.

-이성수(Naina)

Kamathipura balwadi & Night care center

홍등가가 위치한 kamathipura 지역.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이 곳에 위치한 balwadi는 만으로 2세부터 5세 정도의 아이들이 오는 pre-school이다. 오전에만 약 80~100명의 아이들이 오고, 오후에도 꽤 많은 아이들이 찾아온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운영되는 Day care center의 몇몇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를 재밌게 지낸다.

어쩌면 아직은 엄마 품이 더 익숙한 어린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지자마자 울음을 터뜨린다. 이내 친구들과 어울려 방긋방긋 웃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연신 창문을 바라보며 혹시 엄마가 오지 않을까 하루 종일 울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교실에는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세 분과, 옆에서 수업을 돕는 도우미 선생님 세 분이 계시다. 수업은 주로 기도와 율동,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커리큘럼이 아주 체계적이지는 않다. 아이들이 매일 아침 오는 수고에 비해 받는 교육의 질이 높지는 않았다. 열악한 balwadi를 위해 우리 인도팀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뭄바이에서의 첫 활동으로 우리는 balwadi의 아이들이 좀 더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약 일주일 간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페인트 칠을 하고 그 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그림들을 그렸다. 또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청소하고 새 타일을 깔아서 모두가 사용하기 편하게 작업했다. 우리는 환경 개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측면보다는 체조와 놀이에 더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라온아띠가 함께 하는 약 3주간의 balwadi 생활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노래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우리 단원들과 함께 했던 나날들을 생각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Kamathipura balwadi & Night care center



해가 질 무렵 YMCA ORD에는 학생들이 하나 둘 씩 모여든다.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야간 학습을 하는 Night care center가 시작된다. 라온아띠가 오길 기다리는 학생들을 보기 위해 약 5일간 학생들과 함께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오자 다들 들뜬 나머지 평소와 같이 조용한 학습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지만 서로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우리는 마지막 날 Korean Culture Day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에서 가져 온 한복과 태권도복을 입고 한복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태권도 소개, 한국의 대표적인 과자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전통 놀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 딱지를 접는 방법을 알려주고 서로 딱지치기를 하기도 하고, 고누 놀이도 신나게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인도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경험이었으며, 서로의 문화를 깊이 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오현지(Anushka)

인도 풍경 스케치

인도에 도착한지 한 달이 되었다. 처음 낯설게만 느껴지던 봄바이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서서히 자리 잡았다. 매일 걷는 YMCA 길 위의 풍경은 한 쪽의 수채화와 같다.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모호한 봄바이. 사람들은 길을 건너고 싶으면 건너고, 차들은 크게 경적을 울리면서도 건너는 사람을 기다려준다. 이색적인 풍경에 위험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길을 건너기 위해선 약간의 담력이 필요하다. 길 위엔 사람 반, 자동차 반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그만큼 봄바이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무표정해 보이는 얼굴, 배꼽을 드러낸 여인들의 옷차림, 맨발로 길을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원의 동물을 보는 마냥 처음 외국인(?)으로서 받는 시선이 느껴졌다.

봄바이 사람들이 아무런 말없이 있으면 투명스럽게 보인다. 외국인에게 먼저 'Hi'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은 주로 어린 꼬마 친구들이다. 손을 들고 흔들며 인사를 받아주면, 히죽 웃으며 지나간다. 문득 이 사람들에게 라온아띠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궁금하다. 2주 정도 지나며 매일 걷는 길이 익숙해졌다. 프리스쿨 장소까지 걸으면서 들어오는 풍경은 판자촌을 연상케 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을 쪼갠 공간, 부엌과 화장실이 따로 없는 조그만한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작디 작은 집에 사람은 옹기종기 모여 생활하고 있었으며, 작은 냉장고와 텔레비전까지 살림살이들이 있었다. 이나마 작은 집도 없이 길 위에서 작은 천막 하나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가족도 눈에 쉽게 들어왔다. 판자촌의 집 건너편엔 리어카와 비슷한 것에 매대를 놓고 잡동사니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 사람들의 일상은 어떨지 훑아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매일 커리를 먹는다. 하지만 매일 다른 커리를 먹고 있었다. 인도의 향신료 때문에 적지 않게 고생을 하고 있다. 마살라(?)라고 불리는 채소의 향이 모든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미나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과 향은 완전 다르다. 음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마살라(?)에 적응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 듯싶다. 인도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불어 무슬림과 힌두교가 서로 먹지 않는 고기가 다르다. 그런 연유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닭고기다. 닭고기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 많고 다양하는 것을 인도에서 느꼈다. 얼핏 보면 닭볶음탕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음식이 있지만, 이 역시 커리의 한 종류였다. 인도의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 아직 적응하지 못해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고 있다. 뜨거운 커리를 밥에 비벼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면 경외감이 든다. 한 번은 도전해볼만 하다. 길 위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유혹을 한다. 팀원들은 마살라도사(?)라는 음식에 흠뻑 빠졌다. 한국에서 먹는 감자전과 같은 맛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길거리 음식에 많이 도전하지는 못했다. 혹여 음식을 잘못 먹고 탈이 날까 염려되는 측면이 크다. 이름은 모르지만 맛있어 보이는 길거리 음식은 인도의 식습관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한 달 동안의 봄바이 생활을 하며 터득한 것은, 인도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는 것과 조금 더 사람들의 내면에 다가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스스로에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지만, 인도 사람들에게겐 여전히 이방인으로 느껴지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운 염려를 해보았다. 인도에 머무는 동안, 인도 사람보다 더 인도 사람으로 지내는 것은 늘 현재 진행 중이다.

이병찬(Samir)

축제의 나라, 인도



우리가 도착한 9월은 뭄바이 최대의 축제인 Ganesh Chaturti가 열리는 기간이었다. 공식적으로 19일 시작된 축제는 시작 전부터 마을 구석구석을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하게 하더니, 10일 간 화려하게 펼쳐지며 도시 전체를 달궜다. 축제 기간 동안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혹은 마을 단위로 가네시 신상을 모시고 Ganpati Bappa라는 의식을 행한다.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 날 초파티 해변에서 신상을 바다로 띄우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한다. 우리는 거리 곳곳에서 복을 치거나, 폭죽을 터트리거나, 색색의 염료를 던지며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곳에서 친해진 Balwadi(유치원) 선생님들과, Night study center의 학생들, 우리가 Baba(아빠)라고 부르는 Y직원의 초대를 받아 여러 번 간빠티바빠를 보러 갈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인도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따뜻한 호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가네시 짜뚜르띠와 관련된 신은 파괴의 신 쉬바와 그의 아내 빠르바티 사이의 아들인 가네시이다. 그는 인도 인구의 80.5%가 믿는 힌두교에 존재하는 4억 8,000만의 신들 중에서도 인도인에게 인기가 높은 신이다. 그는 상업의 신으로 금전적 행운과 복을 가져온다고 믿어져 인도의 경제적 수도라고 불리는 뭄바이 지역에서 특히 사랑받는다. 코끼리 얼굴에 똥똥한 몸매를 가진 친근한 외모에 거대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생쥐를 타고 다니는 익살스러움은 처음 보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도 충분했다.

그 외에도 인도는 축제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에 따라 종교에 따라 크고 작은 축제들이 곳곳에 펼쳐진다. 이곳에 머무는 한 달간 우리는 수확을 감사하는 남인도 지역의 축제인 ONAM과 Bandra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BANDRA 축제에 초대받을 수 있었다. 언어, 종교, 피부색, 국적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축제에서 만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진심으로 신의 가호를 빌어주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인도에는 11월 행운의 여신인 락시미를 맞이하기 위해 디야에 불을 밝히고 폭죽을 터트리는 전국적 축제 Diwali와 코란이 백성에게 내려온 날을 기념하는 Ramadan, 12월 기독교의 축제인 Christmas가 기다리고 있다. 인도가 가진 종교적 다양성과 풍요로움 덕분에 우리 팀의 생활은 하루하루 활력과 예측 불가능한 기쁨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

-채선영(Arpita)



인도의 스포츠

인도로 자원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 가장 먼저는 인도에서의 활동에서 들뜨거나 소진되지 않도록 마음에 준비를 했고,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면서 문득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필요하고, 그 것이 운동일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지 '인도에도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인도는 어떤 스포츠가 대중적일까?'라는 궁금증도 있어서 첫 에세이의 주제는 '스포츠'로 정해보았다.

YMCA의 여러 기관들을 돌아보면서 bumbai YMCA에서 지역 주민과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탁구와 농구가 있었는데 지난 주 에는 뭄바이YMCA 주최로 뭄바이 농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도의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하면 크리켓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숙박중인 YMCA International house 바로 앞에 있는 운동장에서 매일 크리켓을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크리켓은 야구와 조금은 비슷한 스포츠로 투 팀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각 팀당 11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지만 야구와 달리 원형 구장 중간에서 투수와 타자가 승부를 겨룬다. 인도의 크리켓 팀은 세계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팀이라고 한다. 인도에서의 크리켓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도는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국가 중 하나이고 Mumbai는 극에 달한 빈부의 격차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도시이다. Mumbai의 빈민들에게 농구, 축구, 탁구 등과 같은 스포츠는 도시빈민 아이들에게는 접하기 힘든 스포츠일 것이다. 그렇지만 크리켓은 공 하나와 라켓 하나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스포츠였다. 주차장이나 골목 또는 운동장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여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에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월 2일 간디의 날에 진귀한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간디의 날은 많은 인도사람들이 일을 쉬는 공휴일이다. 그 날 International house에서 운동장을 바라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농구와 축구 크리켓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들이 한 팀을 이루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 함께 나와 크리켓을 하고 있었다. 족히 100명은 거뜬히 넘는 숫자였다. 인도라는 나라가 스포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풍경이었다.